

# 헥터 첫 피칭 합격점 “시즌 준비에 전력”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25개 투구·구속 147km  
“스트라이크 위주로 던져”  
템포 좋고 킥 모션 빨라  
KIA, 히로시마전 0-8 패

‘특급 외국인 선수’ 헥터 노에시가 마운드에 첫 선을 보였다.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선수 헥터 노에시가 22일 일본 오키나와 구장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의 연습경기에서 첫 실전 피칭을 소화했다. 2이닝을 소화한 헥터는 9명의 타자를 상대해 3피안타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실점을 남겼지만 헥터는 “시즌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만족스럽다”고 첫 등판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등판이었다. 1회 첫타자 타나카를 중전안타로 내 보낸 헥터는 키쿠치를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마루에게 우전안타를 맞으며 1사 1·3루에 몰렸다. 1루수 플라이로 4번타자 마츠야마를 돌려세웠지만 5번 스키에게 좌익수 킥을 넘기는 2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헥터는 1회 6명의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15개의 작구만 던졌다. 최고 구속은 147km.  
2회에는 체인지업으로 변화구 시범을 했다. 2회 첫타자 하부를 헷스윌 삼진으로 처리한 헥터는 이시하라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았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는 스탠딩 삼진이었다. 삼진을 잡은 결정구는 타이밍을 뺏는 체인지업이었다. 헥터는 2회를 끝

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총 투구수는 25개. 체인지업 최고 구속은 138km, 커브(124km)와 슬라이더(140km)도 하나씩 던졌다.  
헥터는 “스트라이크 위주로 피칭을 했다. 100프로 전력은 아니었고, 시즌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서 관중은 피칭이었다. 스프링캠프가 아니라 정식경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야구는 90%가 멘탈이고, 10%가 피지컬이라고 생각한다. 피지컬적인 준비는 끝났다. 한국에 들어가면 전력을 다해서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기태 감독도 헥터의 첫 피칭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  
김 감독은 “템포도 좋고 킥 모션도 빠르고 여유가 있다. 투구수를 늘려가는 과정이고 시범경기에 맞춰 준비가 될 것이다.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헥터의 등판을 기점으로 KIA의 본격적인 라인업 구성도 시작됐다.  
조용히 캠프를 치르고 있던 주장 이범호가 5번 타자 겸 3루수로 처음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김주찬도 3번 지명타자로 나와 타선에 무게감을 더했다. 두 타석을 소화한 두 사람은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범호는 4회 2사 1루의 두 번째 타석에서 좌측으로 큰 타구를 날리기도 했다. 맞바람이 불면서 담장을 넘기는 데는 실패했지만 관중은 컨디션을 보여줬다. 마운드에서는 최영필·김광수 두 베테랑이 첫 실전 피칭을 소화했다. 23일 요미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지크가 선발로 나오는 등 남은 연습경기에서 주전 멤버들의 이닝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KIA는 이날 히로시마의 투수전에 막혀 0-8 영봉패를 당했다. 연습경기 2연패다.  
/오키나와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KIA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헥터 노에시가 22일 오키나와 구장에서 열린 히로시마와의 연습경기에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서재웅이 22일 오키나와 구장을 찾아 관람석에서 KIA와 히로시마의 연습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 “쉽고 정확한 해설 하겠다”

‘해설위원’ 서재웅 오키나와 구장 찾아

“그라운드 보는 느낌이 색다롭니다.”  
“나이스 가이” 서재웅이 22일 오키나와 구장 관람석을 찾았다. 서재웅 선수가 아닌 서재웅 해설위원이 그의 이름이었다. 지난달 은퇴를 선언한 서재웅은 해설위원으로 변신해 2016 시즌을 맞는다.  
지난 21일 해설위원 자격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찾은 서재웅은 22일 ‘진정 팀’ KIA의 연습경기 취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설위원 행보에 나섰다.  
유니폼이 아닌 사복 차림을 한 그는 관람석에 앉아 KIA와 히로시마의 연습경기를 유심히 지켜봤다.  
양팀 선발전에 대한 평가로 그의 관심이 시작됐다.  
“히로시마 선발 투수의 볼 끝에 힘이 좋다”고 언급한 서재웅은 헥터의 피칭을 지켜보면서 좋은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재웅은 “좋은 피칭을 한다. 특히 체인지업의 경우 킥 모션이 빠르다. 작구 타이밍에 짧게 나와서 위력적이다”고 말했다.  
선수의 눈이 아닌 해설위원의 눈으로 경기를 살펴본 그는 옛 동료들을 인터뷰하기도 하는 등 분주하게 경기를 누볐다. 그를 알아본 팬들의 사인 요청을 받는 등 여전한 인기도 과시했다.  
서재웅은 “아직 해설위원이라는 이름이 낯설기도 하고 준비할 것도 많다. 선수 입장에서 그라운드를 보는 것과 해설위원으로서 보는 게 조금은 다르기도 하다. 새로운 도전이라 긴장도 되지만 즐겁다”며 “그동안의 야구 경험을 바탕으로 야구를 쉽고 정확하게 전하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달새 PGA ‘톱 5’ 두 번... ‘탱크’ 최경주 살아있다

PGA 노턴 트러스트오픈 5위로 마쳐

‘코리아 탱크’ 최경주(46·SK텔레콤·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턴 트러스트오픈(총상금 680만 달러)에서 공동 5위에 오르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이달 초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차지한 준우승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한 달새 2개 대회에서 ‘톱 5’에 진입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경쟁에 뛰어들면서 2014년 6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공동 2위 이후 약 1년 7개월에 ‘톱 10’에 들었던 파머스 대회의 준우승이 운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보였다.  
지난주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는 3라운드에서 컷 탈락했으나, 2주전 끝난 피닉스 오픈에서는 마지막 날 4타를 줄여 공동 17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 달새 두 번의 ‘톱 5’와 한 번의 ‘톱 20’에 든 최경주는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19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10위 내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25위 안에 이름을 올린 적도 두 번뿐이다.  
이날 최경주는 최종라운드에서 전성기 때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우승에 대한 기대도 키웠다.  
3라운드까지 10언더파 203타를 치며 단독 선두 바바왓슨(미국)에 두 타 뒤진 공동 5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출발한 최경주는 6번홀까지 무려 4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한 때 공동 선두까지 오르기도 했다. 후반 홀에서 두 타를 잃으며 아쉽게 뒷심 부족을 보였지만, 이날 10번홀까지의 플레이는 전성기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1번홀(파5) 버디 이후 2번홀(파3)에서 티샷이 흔들리며 위기를 맞았지만, 최경주

는 10m 거리의 언덕이 있는 파 퍼팅을 흘림으로 그대를 잡아넣으며 막아냈다.  
파3 6번홀에서는 티샷이 홀컵 주위에 떨어진 뒤 백스핀으로 홀컵 1.5m에 갔다 붙이며 홀인원의 기대도 높이기도 했다.  
10번홀(파4)에서는 두 번째 샷이 병커에 빠졌으나, 환상적인 병커샷으로 20m 가까이 떨어져 있던 홀컵 약 50cm에 공을 붙이며 파 세이브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 공동 5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랭킹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 리우 올림픽 진출도 가시권에 두게 됐다.  
파머스 오픈 준우승과 피닉스 오픈 17위로 세계랭킹을 334위에서 127위까지 끌어올린 최경주는 이번 대회 5위를 앞세워 102위까지 경중 뛰어올랐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지난해 출전하지 못했던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무대를 다시 밟을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우승. 2011년 5월 플레이 어스 챔피언십 이후 4년 8개월 만의 통산 9승째를 올린다면 올림픽과 마스터스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40대 후반으로 접어든 최경주가 올해 PGA 투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럭비 첫 국제대회 우승 한국 여자 럭비 대표팀(감독 윤환명)이 지난 20~21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첸나이 자와할랄 네루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아시아 여자 럭비 발전대회 7인제'에서 정상에 올라 한국 여자 럭비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대한럭비협회 제공>

## LPGA 우승 노무라 세계랭킹 48위로 경중

한국계 노무라 하루(일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호주여자오픈 우승으로 세계랭킹을 48위로 끌어올렸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노무라는 22일 발표된 세계여자랭킹에서 1.90점을 받아 지난주보다 19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일본여자골프는 22일 현재 세계랭킹으로 미야자토 마카(40위), 오야마 시호(41위) 2명이 리우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노무라가 48위로 자리해 일본여자골프에서도 올림픽 티켓 경쟁에 붙이 못했다. 리디아 고(19)가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유지했고,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 前 삼성 2루수 나바로, 실탄 소지 혐의로 체포

작년까지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했던 내야수 아마이코 나바로(29·지바롯데 마린스·사진)가 실탄을 소지한 채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잡혔다.  
일본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초치’는 21일 오키나와현 경찰이 나바로를 총도범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나바로 소속팀 지바롯데 선수단은 21일 닛폰햄 파이터스와 연습경기를 치르고 다음 일정을 위해 미야자키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나바로 역시 팀 동료와 함께 미야자키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털미가 잡혔다.  
오키나와현 경찰은 나바로의 가방에서 권총 실탄 1발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나바로는 “도미니카 집에 있던 실탄이 섞여 들어온 것 같다. 가방에 들어 있던 걸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나바로의 고국 도미니카공화국은 실탄 소지가 불법이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법으로 금지한다.  
나바로는 2014년 삼성에 입단, 2년 동안 26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7 79홈런 235타점을 올린 강타자다.  
특히 작년 나바로가 친 48개의 홈런은 역대 KBO리그 2루수 최다 홈런이다.  
/연합뉴스

